기도주간 · 3일

12월 1일, 화요일

태국의 더그 더비샤이어

더그 더비샤이어는 태국에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없는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일로 그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힘든 것은 바안 포에 복음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더비샤이어는 국제선교부 소속의 의사로 부인 셰릴과 함께 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더비샤이어는 신실하고 꾸준히 바안 포를 방문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료진을 데려와 이동식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전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듣는데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받아들여졌다가는 버려졌습니다 .

"바안 포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 내게 더 큰 영향을 주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을 그곳에 사용하고 있고, 모든 시간을 그곳에 투 자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는 아직도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더비샤이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안 포에 교회를 일으키시는 것을 꼭 봐야만 합니다." 더비샤이어가 말합니다.

더비샤이어는 바안 포에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다른 이동 의료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이 것은 몸을 위한 약입니다. 이제 영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알아봅시다."

태국 크리스찬

의료 선교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다.

imb | 라티 문 크리스마스 헌금

imb.org/lmco

하나님은 그 “한 번 더”를 사용하시어 강력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2020년 1월 더비샤이어를 비롯한 다른 IMB 선교사들, 태국 그리스도인들과 미국에서 온 의사들이 바안 포에 와서 이동 병원을 열었습니다.

더비샤이어가 전합니다. 그와 다른 의사들이 환자들을 만나고 나면, 태국인 스태프중 한 사람이 환자와 함께 앉아서 “이것은 당신의 몸을 위한 약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육체적 필요를 살피는 것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 이동 병원이 있기 전까지 바안 포의 태국인들은 영적인 건강을 갖거나 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동 병원 첫날, 세 사람이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에 관해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비셔이어는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제 바안 포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비샤이어는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7~8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관심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100명, 때로는 200명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팀이 오면, 매일 200~300명의 환자들을 봅니다. 오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전례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주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미국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고 더비샤이가 말합니다.

더비샤이어와 태국 그리스도인들은 바안 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복음에 관해서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아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교인 중에 누구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바안 포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의료 선교를 통해 교회를 개척하다.